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1월 3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창세기 32장 22-28절

설교제목 : “성숙의 길 (기도)”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상황적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란 상황은 야곱이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직면한 문제는 야곱 자신이 살아온 삶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늘 속이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던 삶의 결과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남은 상황은 위기와 기회의 이중적 의미를 포함한 상황입니다. **홀로 남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위기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의 막힌 문제를 푸는 해답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야곱은 홀로남은 시간에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24절) 보통 이 씨름을 야곱의 절박한 기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씨름은 절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 이 씨름이 야곱의 절박한 기도라고 해석을 한다면,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절박한 기도를 듣지 않기 위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외면하려고 우리의 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은 무엇입니까?**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걸어오신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계십니까? 현재 야곱의 직면한 상황은 야곱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방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살아온 인생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인생의 행복이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의 조건들을 취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팔죽 한 그릇에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몫이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더불어, 야곱은 자신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늘 회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의 몫인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문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과도 문제가 발생하자, 야곱은 라반을 피해 야반 도주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남은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려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재산은 물론, 식구, 심지어 처와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문제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서 야곱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더 이상 너희 잘못된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네가 변해야 한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설득 앞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지속된 하나님의 설득은 새벽이 되어서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설명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찹니다. 허벅지 관절이란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뼈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란 야곱이 의지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이 힘만 있으면 야곱은 언제든지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의 힘은 야곱이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근거였

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신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꺾이자, 더 이상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야곱처럼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5절 이전과 26절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26절) 여기부터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27-28절)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도응답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주시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문제가 환경과 조건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의 결과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경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의 전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 압복나루는 새로운 변화의 시점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2:20)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옛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없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변화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되어집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야곱이 홀로남은 상황에서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야곱이 살아온 인생의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때론 인생의 위기가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